

특성화고 취업률 1위? ... 기준따라 들쭉날쭉

3년연속 1위 전남, 주말 알바·입대자에 면접만 본 학생도 포함 취업자 중 고용보험 혜택 못받는 광주·전남 1695명 조사 중

“단기 주말 아르바이트생, 군 입대자, 기업 면접만 본 학생들이 직업계 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직업계 학교가 취업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등록한 게 아닐까요.”

전남도교육청의 지난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78.3%에 달하는 등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대졸 취업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것과 달리 전남지역 직업계고 출신 10명 중 8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이

같은 전남도교육청의 직업계고 출신의 높은 취업률을 ‘허수’라고 지적했다.

17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출신의 취업자 명단을 제출받지 않던 20일부터 ‘직업계고 졸업 취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상은 2014~2015년 직업계고 졸업 취업자 중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1695명(광주 310명, 전남 1385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매년 직업계고 졸업 취업률이 증가한 것과 달리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은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조

사의 취지는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목포지청 등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 학교에서 단체로 면접만 보고 온 학생들을 취업한 것으로 등록하고,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주말에만 잠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을 취업률에 포함한 것이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많은 사례가 적발됐다”며 “교육청이 취업 기준을 어디까지 잡은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평가 지표로 직업계고 취업률에 높은 배점을 배정하면서 고용의 질과는 상관없이 취업률을 집계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실제

농장주의 개인 도장만 받아 제출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학교가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실적 조사 기준에 따라 취업률을 조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출신 취업률은 2012년 41.5%에서 지난해 62.6%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위 ‘좋은 일자리’의 적어도 고용보험이 보장된 일자리 취업비율은 2012년 79.6%에서 지난해 58.8%로 급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구멍 뚫린 정부 조달구매

불량 차선분리대 납품 관련 지자체 공무원·조달청 공방 “조달청이 업체 관리 소홀” “검사·검수는 수요기관 몫”

정부 조달구매에 구멍이 뚫렸다. 경찰이 ‘불량 차선분리대 납품’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 10명을 검사 및 관리 소홀로 형사 입건<광주일보 10월14일자 7면>하면서 조달구매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달청이 제대로 된 업체를 등록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조달청은 “검사·검수는 수요기관 몫이다”고 책임을 돌렸다. 경찰은 “조달청·지자체 공무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규격에 미달한 차선분리대를 설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10명(광주 3명, 나주·순천·무안 각 2명, 광양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실대로 정상 업체로 판단하고 불량 제품을 검사·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선분리대 높이가 90cm가 돼야 하는데 이 업체는 90cm 제품을 생산할 설비를 갖추지 못했고, 재질도 규격서와 맞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구매담당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달 물품 품질 관리는 조달청의 고유 업무로 제품의 재질·성분 검사는 조달청이 제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질·성분 검사도구가 없는 구매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크기·수량 등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차선분리대도 높이 90cm, 수량 등이 일치해 수령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를 조달업체로 등록해 준 것은 조달청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해당 업체의 조달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험성적서·입찰서·규격서 등을 모두 확인한 뒤 등록했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과 실제 구매 제품이 다른 경우 수요기관이 적발해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서류 중 하나인 분할납품증서에서 “수요기관 검사”라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구매담당 공무원들은 조달청이 조달 등록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업체를 서류로만 하다 보니 업체에 쉽게 속아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검수는 수요기관 인 지자체 몫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항변이다.

한 공무원은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야 할 것”이라며 “조달청의 책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불량 차선분리대 납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주 5차레 3% 이자 줄게” 수익원 가로챈 2명 적발

광주서부경찰청은 17일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수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65)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여·6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광주에 유사수신업체 사

무실을 차리고 이모(여·73)씨 등 7명에게 2억3600만원을 받아 쟁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제주도, 정선 등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주 5차레, 투자금의 3%씩을 이자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내거나 다른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손님 돌연사로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일당 들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은밀한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이 외국인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한 30대 남성외국인 카지노 경찰에 적발.

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 ○·오씨와 업소에서 일한 카지노스탄 출신 외국인 여성(20) 등 종업원 3명은 손님 찾아가는 A(32)씨가 지난 16일 새벽 카지노스탄 출신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갑자기 숨지면서 경찰에 적발됐는데, 경찰은 “숨진 손님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수술받았고, 평소 혈압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17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업주 오모(37)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오피스텔 7채를 임대한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1건당 11만~15만원을 받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요양급여 4억원 빼돌린 요양원 대표 등 5명 적발

국고보조금인 노인요양급여 수익원을 빼돌린 요양원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요양급여와 노령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남 요양원 대표 이모(여·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씨가 가져다 발급해 준 실습확인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원행방해)로 최모(51)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2년간 요양원 종사자 근무 인원과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요양급여 3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요양원에 입소한 무연고 노인 4명의 노령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연금 3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씨는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 점검이 나올 때는 허위 등록한 직원에게 연락, 시설에 나와 있도록 해 적발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노인들의 통장에서 연금을 인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며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법·횡령 액수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씨가 피해 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들어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대부분 치매가 있거나 무연고자들이어서 연금을 착복하더라도 전혀 알 수 없다”며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회수하고 관련 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핵발전소 반대 100만 서명운동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 회원들과 ‘영광핵발전소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7일 5·18민주광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고 피로맨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상습 사기극 고졸 출신 과외교사 구속

1년 수강료 수천만원 받아 끌켜 중고차 업자에 돈 빌려 오리발

자녀의 학업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수천만원의 과외비를 받아 가로챈 고졸 출신의 40대 과외교사가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청은 17일 학부모들로부터 과외비를 받아 가로채고,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빌린 수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허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월 중학생 자녀를 둔 정모(여·40)씨로부터 과외비 명

목으로 695만원을 받는 등 지난 3~7월 중·고등학생 학부모 3명에게 모두 371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같은 기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51)씨로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3억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졸인 허씨는 학부모들로부터 1년 수강료를 카드로 선입금 받고 1~3개월만 과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학부모들이 항의하면 ‘몸이 아프다’ ‘교육청 점검이 있다’ 등의 핑계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김씨에게 학

부모들이 결제한 1년분 수강료 보여주면서 매달 8%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의 교사 겸 중고차 매매상으로 일해온 허씨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만난 손님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교사들에게 과외를 받으면 국·영·수 등급과 실력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씨가 수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기 위해 가로챈 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씨가 담양과 장성에서도 학부모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000~6000만원에 달하는 과외 수강료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p>수익형 빌딩</p> <p>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p> <p>순천시 풍덕동 / 10층 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p>	<p>가스충전소</p> <p>감정가 12억7천만, 최저가 8억9천만</p> <p>화순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자동세차기 / 3기 6구</p>	<p>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3천만, 최저가 9억6천만</p> <p>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p> <p>토지 감정가 16억4천만, 최저가 16억4천만</p> <p>화순 화순읍 / 대지 932평 / 2종일반주거지역, 개발촉진지구 / 광덕지구 서측 / 8m도로점</p> <p>고급레스토랑 감정가 9억 1천만, 최저가 5억1천만</p> <p>영암 삼호읍 / 2동 1층 / 임야 3166평 대지 721평 건물 130평 / 삼포교차로 북측</p> <p>고급펜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p> <p>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p> <p>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6천만, 최저가 2억</p> <p>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p>
<p>오피스텔</p> <p>매매가 40억</p> <p>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p>	<p>상가건물</p> <p>매매가 14억5천만</p> <p>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p>상가 매매가 17억</p> <p>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p> <p>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p> <p>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p> <p>전원주택 매매가 13억</p> <p>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5천만</p> <p>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p> <p>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5천만</p> <p>북구 임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